

# 설총과 국어

안병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설총의 가계와 생애

같은 시대의 다른 인물과는 달리 설총에 대한 기사는 삼국시대 사서의 쌍벽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이하 각각 『사기』와 『유사』로 줄인다.)에 다 나타난다. 이들을 종합하면, 그의 가계와 생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가계에 대하여 『사기』[권46 열전(列傳) 제6, 설총(薛聰)조]에는 할아버지가 나마(奈麻) 담날(談捺)이며 아버지가 유명한 고승인 원효(元曉)라 하고, 아들인 설 판관(判官)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그 나라 진인(真人)에게서 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사서인 『속일본기(續日本記)』[권36 광인기(光仁紀) 보귀(寶龜) 11년(780) 정월 조]에 신라 사신의 정사, 부사, 대판관(大判官)에게 관직을 주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대판관 살중업(薩仲業)의 이름이 보인다. 관직이 『사기』와 같고 우리나라에 없는 성인 살(薩)이 문제인데, 그것은 자형과 자음의 유사로 말미암은 설(薛)의 오기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기』에서 모른다고 한 아들의 이름은 중업으로 추정된다. 『유서』[권4 의해(義解) 제5, 원효불기(元曉不羈)]에는 원래

아버지 원효에 대한 기사가 수록되었으나, 그 가운데서 설총의 가계를 더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원효의 속성이 설씨이니 할아버지가 잉피공(仍皮公) 또는 적대공(赤大公)이라 한 기사가 그것인데, 여기서 그의 증조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거기에는 어머니가 요석궁(瑤石宮)의 공주임을 밝혀놓았다. 이로써 설총은 부모, 증조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알게 되며, 신분이 어머니는 진골(眞骨)이나 부계(父系)에 따라 학자, 종교가로 출세하는 육두품(六頭品)임을 알 수 있다.

설총의 출생에 대하여는 유명한 원효의 파계(破戒) 설화로 잘 알려져 있다. 『유사』(위와 같은 곳.)에 의하면 어느 날 원효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 하늘 버틸 기둥을 깎을 터인데 하고 외쳐대자, 태종 무열왕(武烈王)이 그 외침이 큰 인재를 낳고 싶어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그를 요석궁(瑤石宮)으로 인도하게 하여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설총이라 한다. 그 시기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태종이 궁리(宮吏)에게 내린 명령을 왕명(王命)을 뜻하는 '칙(勅)'으로 적었으므로 태종의 재위 기간(654-661년)에 있는 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설총은 7세기 50년대에 경주의 요석궁에서 출생한 것이 된다(이 기사와 위 일본 사서의 기사 사이에는 연대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사실만 확인하고 연대에 대하여는 뒷날의 연구로 미룬다). 그러나 『유사』에는 아버지 원효가 현재의 경산시(慶山市)인 압량군(押梁郡) 남쪽에서 태어났다고 하므로, 오늘날 서울의 1세대의 고향이 그의 아버지를 따르는 관례가 옛날에도 있었다면, 더욱이 그 곳이 경주의 속현(屬縣)인 점을 감안한다면 설총의 고향도 압량군이 될 것이다. 실지로 경산시 사람들은 그 고장의 삼성산(三聖山)이 원효, 설총, 일연(一然)이란 세 성인과 관련된 이름이라 하여 그렇게 믿고 있다. 그곳의 원효사(元曉寺)와 도동재(道東齋)에는 각각 1913년과 1924년에 세운 「홍유후설선생신도비(弘儒候薛先生神道碑)」가 있으므로 그 믿음은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다.

원효의 파계 설화로 알려진 그의 비범한 출생담(出生譚)에 걸맞게 설총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위의 사서에 의하면 그는 나면서 총명하

여 유교의 경전과 사서(史書)를 널리 통달하고 방언(方言) 곧 국어로 경전을 풀이하여 후생(後生)을 지도하여 두 사서가 편찬될 당시까지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높이 받든다고 한다. 이는 유학사(儒學史)에 남긴 그의 공적인 동시에, 이두(吏讀)의 창시를 말하는 사실로써 우리 문자사(文字史)에 높이 평가될 업적이다(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또 『사기』에는 그가 글을 잘 지었다고 하나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남쪽 지방에 그가 지은 비명(碑銘)이 있으나 글자가 마모되어 읽을 수 없어서 그의 글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신문왕(神文王)의 요청으로 지은 「화왕계(花王戒)」를 소개하였다. 「화왕계」는 조선 초에 역대 우리나라의 명문을 모아 편찬된 『동문선(東文選)』(권52 주의(奏議))에 「풍왕서(諷王書)」라는 이름으로 실려 널리 읽히고 있다. 『동문선』에 실린 이 글은 그의 문장력을 알려주지만, 내용에서 그의 유학에 대한 온축(蘊蓄)을 보여주는 점으로도 귀중하다. 이러한 사실과 위에 말한 경전의 해석으로 고려 현종(顯宗) 재위 13년(1021)에 홍유후(弘儒侯)로 추증되어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것과도 관련되는 일이지만, 설총은 유교의 가장 기본적 덕목으로 인정되는 효(孝)를 몸소 실천하였다. 『유사』에 의하면, 원효가 죽자 설총이 그의 해골을 부수어 소상(塑像)을 만들어 분황사(芬皇寺)에 모시고 옆에서 예배를 하니 소상이 갑자기 돌아보았다는데, 『유사』가 편찬될 그때까지도 돌아보던 모습대로 몸을 돌린 채 있었다고 한다. 해골을 부수었다는 일은 아마 다비(茶毘) 뒤에 유골을 수습하였다는 뜻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설총의 집터가 원효가 살던 혈사(穴寺) 곁에 있었다고 하니, 생전에는 아버지 가까이 살면서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지는 않았으나 설총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가까이 살면서, 돌아갔을 때는 소상을 만들어서 정성껏 모신 효자임을 말하는 기사인 것이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사기』에서는 남쪽 지방에 설총이 지은 비명이 전한다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1910년대에 경주의 감산사(甘山寺)에서 발견된 아미타불입상(阿彌陀佛立像)의 광배(光背)에 있는 조상기(造像記)가 알려졌는

데, 그 끝에 글 지은이를 말하는 '奈麻聰撰奉教'란 구절이 있어서 그 조상기가 읽지 못한다는 비명의 하나로 추정되었다. 근래에는 바로 그 구절이 순수한 한문이 아니라 국어의 어순이 반영된 표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설총의 이 두 제작설과 관련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奈麻聰奉教撰'이라야 한문의 구조에 맞는데, 이 구절은 '나마 (설)총이 지으니 왕명을 받들었다'고 하는 국어가 간섭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상기를 자세히 검토하면 그 해석에 따르지 못할 점이 있다. 첫째로 조상기의 본문은 한문으로 되었는데, 끝에 있는 아주 간단한 조상기 지은이의 표현에서 갑자기 국어의 어순이 나타난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이다. 둘째로 본문을 보면 왕과 돌아간 부모에 대하여는 대두법(擡頭法)이 적용되어 '國主大王, 聖主, 聖世, 亡考, 亡妣' 등 앞에는 모두 공격(空格) 곧 빈칸이 나타나 있다. 문제의 구절에 있는 '교(教)'가 왕명이라면, 조상기 본문은 물론이고 일반 한문의 관례에 따라서 응당 그 앞에는 빈칸이 나타나서 '撰奉(공격)教'이거나 '奉(공격)教撰'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교는 그 글자의 일반적인 뜻인 가르침,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상을 조성한 김지전(金志全)의 가르침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조상기 본문을 지은 한문의 실력으로 왕명이 아니라고 하여 '奉教撰'이라 하면 빈칸을 빠뜨린 실수로 볼 오해가 있을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어순을 바꾸어 '撰奉教'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어떻든, 이 조상기는 「풍왕서」 이외의 또하나 설총이 지은 글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컨대 「풍왕서」와 이 조상기는 한문 문장가로서의 설총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자료가 된다.

생애와 업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설총의 스승과 관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서에서는 모두 나면서부터 총명하였다 하여, 다시 말하면 이른바 생而知之(生而知之)하였다 하여 스승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사기』에서는 끝에 적기를 일찍이 당나라에 가서 배웠다고 하나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의 수학할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원효와 달리 당나라에 가서 선진 문물을 공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말할 것도 없고, 다녀왔다고 하여도 태종 때로부터 신문왕 때까지 활약한 강수(强首)에게 수학하였다고 생각된다. 『사기』의 기록대로 강수는 당대의 큰 유학자이면서 문장가이기 때문이다. 그의 관직에 대하여도 사서에 명기된 바가 없다. 『사기』에는 설총이 「풍왕서」를 짓자 신문왕이 크게 칭찬하고 높은 벼슬을 주었다고만 적고 있다. 신분으로 보아서 그 벼슬은 국학(國學)의 고위직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에 설명될 것이지만, 후세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가 읽고 해석한 경전을 따라 배웠다고 한 사서의 기사도 경전에 대한 그의 이해와 해석이 탁월한 사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나 그가 국학의 높은 벼슬을 가지고 유생(儒生)을 훈도한 관직에 있었다고 할 때 더욱 쉽게 수긍될 수 있는 것이다.

## 2. 설총의 이두 창시(吏讀創始)와 경전 훈해(經傳訓解)

국어학계에서는 이두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설총이 거명되어 왔다. 이미 존재한 이두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공적이냐 새로운 문자체계인 이두를 창시한 공적이냐 하는 평가의 차이가 있으나, 이두를 말하면서 설총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국어학자는 없다. 사료(史料)의 해석에서 의견이 다르나, 설총과 이두를 함께 다룬 기록에서는 거의 명시적으로 그가 이두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두를 말할 경우에는 명칭을 ‘이서(吏書), 이도(吏道), 이두(吏讀), 이찰(吏札)’ 또는 ‘이문(俚文)’으로 다르게 불렀으나, 모두 설총이 지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서, 이도, 이두, 이찰은 각각 관청에서 사용하는 이문(吏文) 곧 법령이나 공사문서(公私文書)에 쓰이는 독특한 문체로 된 글의 문서(吏書, 吏道), 토(吏讀), 짤막한 글(吏札)이란 뜻이고, 이문(俚文)은 국어를 이어(俚語)라 한 말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국어를 적은 글이란 뜻인데 방언문자(方言文字)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자를 빌려서 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이두를 설총이 만들었다는 기록은 조선 초기의 여러 사서(史書)와 지리서(地理書)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1395년, 태조4)의 발문이다. 김지(金祗)는 그 발문에서 설총이 이두를 창시한 것과 이두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명률』은 과조(科條, 법조문)의 경중(輕重)이 각각 타당한 바가 있어 참으로 법을 다루는 이의 준칙(準則)이다. 성상께서 중외에 반포하여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서로 전하여 익히고 외어서 다 법으로 취하게 하고자 하시었다. 그러나 그 글이 예사롭지 않아서 사람마다 쉽게 알기 어렵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삼한(三韓) 때에 설총이 지은 방언문자(方言文字)가 있어 이도(吏道)라 하는데 이 땅 풍습이 배우지 않고도 알고 익혀 숙달되어 잡자기 바꿀 수가 없다. 어찌 집집이 찾아가 (이 『대명률』을) 알려주어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 책을 이도로써 읽게 하여 천부의 능력으로써 인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러한 이두에 대한 인식은 계속되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것을 시대 순으로 들기로 한다.

설총은 자(字)를 총지(聰智)거사라 하는데 원효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여 육경(六經)을 꿰뚫어 통달하고 이문(俚文)을 지어 세상에 전하여 사람마다 쉽게 알게 하여 오늘까지 그에 의지하게 하였다[『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1425년, 세종 7), 경주부(慶州府)].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비루하고 상스럽지만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차용하여 어조사(語助辭)로 쓰기 때문에 문자(한자를 가리킴)와 애당초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1444년, 최만리 등 언문창제 반대상소문).

옛날 신라 설총이 이두를 비로소 만들어서 관청이나 민간에서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훈민정음(訓民正音)』(1446년), 정인지 훈민정음해례서].

자는 총지, 원효의 아들이다. ……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의 뜻을 풀이하여 후생을 가르쳐 지도하였다. 또 이어(俚語)로 이찰을 만들어 관청에서 사용하게 하였다[『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 성종 12) 권 21, 경주부 인물조 설총].

마지막 기록은 1530년(중종 25)에 수보(修補)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수보한 기사 앞에 있는 ‘신증(新增)’이란 주기가 없으므로 원간본인 『동국여지승람』에서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본(零本)으로 전하는 원간본을 신증본과 대교해 보면, ‘신증’이라 주기한 기사를 제외하면 책의 권차(卷次)와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행관(行款)까지 신증본과 원간본이 똑같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설총의 이두 창시의 해석이 나오게 되었으나, 이보다 앞선 고려시대에 편찬된 『사기』(1145년, 고려인종 23 경)와 『유사』(1281년, 고려충렬왕 7 경)에는 설총이 유교의 경전(經傳)을 국어로 해석하여 후배를 지도하였다는 기록만 있으므로, 이두를 집대성하였지만 창시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학계에 거의 정설처럼 통용되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기록에도 설총이 이두를 창시하였다고 분명히 한 사실이 발견되어 집대성이란 견해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되었다.

그 한 기록은 『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1287년(고려 충렬왕 13)에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 나온다.

큰 선비 설공이 이서(吏書)를 만들어서 세속말과 우리말이 범조문과 실무문서를 통하게 하였다(弘儒薛侯製吏書 俗言鄉語通科隸, 권 하, 4a).

여기의 이서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이두, 이도, 이찰과 같은 글을 뜻한다. ‘과례(科隸)’는 과두서(科斗書)와 예서(隸書)로서 문자로 보는 해석, 또는 과공(科工)과 예서로서 과거를 위한 학업과 공사(公私)의 실무문서를 다루는

사무로 보는 해석 등이 있다. 이들 이견은 ‘과(科)’에 대한 해석이 관건인데, 우리도 후자를 따라 학업으로 해석한 일이 있다. 이두가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구결(口訣)의 표기에도 사용되었으므로 과거 시험의 하나인 경의(經義)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과를 과공으로 본 해석이 타당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는 책(策), 시부(詩賦)의 제술(製述)도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데는 이두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경전은 구결 표기가 없어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는 과공이 아닌 다른 해석이 요망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과는 자의(字意)에 따라 과조(科條)로 봄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조는 『대명률직해』의 발문에도 나오는 말로서 법의 개조(個條) 곧 조문을 뜻한다. 현재 전하는 이두 자료는 거의 관청에서 다루는 공사 실무에 관한 문서 곧 ‘예(隸)’와 법령 곧 ‘과’에 관한 것이다. 실무 문서의 이두 사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법령의 이두 사용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위의 『대명률직해』를 비롯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1397년, 태조 6)이 그 예증이다. 『경제육전』은 오늘날 전하지 않으나 후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같이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편찬된 책인데, 거기에 비루한 이두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삭제하는 수정 작업이 이내 착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행법(單行法)을 정리, 편찬한 16세기 후반의 『각사수교(各司受教)』에는 여전히 이두가 사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간본인 『수교집록(受教輯錄)』(1698년, 숙종 24) 등에는 이두가 삭제되었으나 자세히 읽으면 ‘하지 말 일’을 뜻하는 ‘安徐’ 등 이두가 발견된다. 이는 수교가 원래 이두로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조종성헌인 『경국대전』 등과 달리 단행법인 수교에는 이두 사용의 관행이 계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육전』이 고려 말부터 태조 초까지의 법률, 법령을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이므로, 과조에 이두를 사용하는 관행은 늦어도 고려시대부터의 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된 과는 그 자의와 이두 사용이 법조문과 실용 문서의 두 영역에 행해진 오랜 관행으로 미루어서 법조문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해석은 이두를 하급 관리의 글이란 뜻으로도 해석되는 이서라고 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다른 한 기록은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 후반의 것이다. 『균여전(均如傳)』에 실린 한림학사(翰林學士) 최행귀(崔行歸)가 균여의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를 한시로 번역하고 쓴 서문이 그것이다. 서문의 날짜가 967년(고려 광종 18) 11월이므로, 설총이 활약한 때로부터 약 300년 뒤의 기록이다. 시기로 보아도 가장 앞선 것이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두와 관련된 부분만 인용해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재자(才子) 명공(名公)은 당십(唐什, 한시)을 읊조리지만 저 땅(중국)의 홍유(鴻儒) 석덕(碩德)은 향요(鄉謠, 향가)를 알지 못하는 일이다. 더구나 당문(唐文, 한문)은 제석천궁(帝釋天宮)의 수주망(垂珠網)이 서로 비취고 늘어선 것과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읽기 쉬우나 향찰(鄉札)은 범서(梵書, 산스크리트 글자)가 잇달아 늘어놓인 것과 같아 저 땅에서 알지 못한다. …… 이 어찌 설 한림(薛翰林, 설총)이 사문(斯文, 한문)을 억지로 바꾸어 번거롭게도 쥐꼬리로 만든 탓이 아닌가.

여기 향요와 향찰은 당십과 당문에 짝이 된다. 곧 향(鄉)은 중국을 가리키는 당(唐)에 대립되어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일을 뜻하므로, 향찰은 당시 우리나라의 향간에서 보통 사용하는 글이다. 그것은 향가 표기의 글뿐 아니라 실용문서와 구결의 표기에 사용되는 이두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이른바 차자표기(借字表記)의 문자체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학계에서 향찰, 이두, 구결로 나누는 문자체계를 총괄한 것이다. 최행귀는 설총이 그 문자체계로써 한문을 번거롭게도 보잘것없는 쥐꼬리로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한 문자체계가 설총 이전에 이미 존재한 것이라면, 한림학사인 최행귀가 유학의 대선배인 설총을 그 문자체계의 장본인으로 언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서문은 설총이 이두를 지었다는 위의 기록들을 다시 확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확인은 『사기』와 『유사』에서 유교의 경전을

국어로 훈해 곧 읽고 해석했다고 한 다음 기록과 관련이 있다.

설총은 …… 방언(方言, 국어)으로써 구경(九經)을 읽어 후생을 가르쳐 지도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높이 받든다(『사기』 권 46 열전 제6, 설총조).

설총은 …… 널리 경사(經史)에 통달하니 신라 십현(十賢)의 한 사람이다. 방음(方音, 국어)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방 풍속과 물명(物名)을 막힘 없이 알아 육경(六經)과 문학(文學)을 해석하여 지금까지 해동(海東)에서 명경(明經)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수하여 끊어지지 않는다(『유사』 권 4 의해 제5, 원효불기).

두 기록은 읽고 해석한 책이 구경과 육경 문학으로 차이가 있으나, 설총이 유학의 주요한 경전을 해석하였다는 점과 그 해석이 12, 3세기의 학자들에게까지 그대로 학습되었다는 것이다. 경전의 해석은, 문면(文面)대로 읽으면, 구두(口頭)로 번역하고 해석하였다는 뜻이다. 설총의 이두 창시에 회의적인 견해는 그러한 문면의 해석에 말미암는다. 그러나 경전의 해석이나 번역이 구전(口傳)만으로 4, 5백년이나 전승되고 학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예에 비추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문자화(文字化)되고 기록된 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최행귀가 위에 인용된 서문에서 말한 쥐꼬리가 바로 그 문자화를 말하였다고 할 때에 비로소 수긍되는 표현이 된다. 오늘날 전하는 유학이나 불교의 경전에 목서로 기입된 구결의 표기가 설총이 해석한 경전에 있었다고 할 때에 그 쥐꼬리란 말이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의 두 기록도 설총의 이두 창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언한다고 해석된다.

설총의 이두 창시 기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향찰, 이두, 구결이란 용어를 검토해 둘 필요를 느낀다. 향찰은 이미 본 바와 같이 학계의 관용과 달리 향가 표기의 글뿐 아니라 실용 문서의 글과 한문의 구결을 표기한 글도 가

리킨다. 당문과 대립시킨 점에서 후대의 이문(俚文)과 같이 국어를 표기하는 모든 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두는 이서를 비롯한 이도, 이두, 이찰 등으로 불렸으나 공사문서와 법조문에 사용되는 국어표기의 글로 제한되어 있다. 이 학계 관용의 이두는 향찰보다 사용 영역이 제한된 글이다. 구결은 한자 성구인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준말인 구결과 동음어로 되어 있으나, 원래 한문의 구두에 들어가는 국어의 문법형태인 토(吐)와 동의어로서 중세국어의 고유어 '입겅'의 표기이다. 그 표기가 '마지기, 외자'를 표기한 '두락(斗落), 외상(外上)'과 똑같이 한자어로 굳어진 말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입겅은 한자의 조자(助字) '也, 焉, 乎, 哉' 등도 가리키던 말이다. 실자(實字)에 대한 조자의 구실이 한문에 대한 토의 구실과 일치한 점을 생각하면 그 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한문 구두에 들어가는 토는 한글 창제 이후로는 한글로도 표기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고려 시대의 자료에는 점과 획으로도 표기되었다. 그러므로 향찰, 이두와 함께 다루는 구결은 향찰, 이두와 똑같이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된 토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결과 향찰, 이두를 포괄하는 용어가 필요하다. 향찰이 원래 최행귀가 사용한 용법과 그 단어의 뜻으로 보아서 그에 적합한 용어이나, 향가 표기에 쓰인 글만을 가리키는 고정관념이 학계에 있다. 차자표기란 용어도 학계에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한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자(借字)는 가차(假借)의 한자인데, 예컨대 향가의 「처용가(處容歌)」에 나오는 '東京 明期月良'을 모두 차자표기로 부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가나(假名)에 비추어서 거기의 '期, 良'은 분명히 차자이지만, '東京, 明, 月'은 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두는 말할 것도 없고, 구결의 'ㅎ-'를 표기한 '爲'의 처리에서도 제기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두를 넓은 뜻으로 잡아서, 향찰, 이두와 구결을 포괄하는 문자체계, 이른바 차자표기의 문자체계를 가리키고자 한다. 법조문이나 공사문서에 사용된 종래의 이두는 좁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 좁은 뜻의 이두는 넓은 뜻의 이두에 대하여 이찰이라 부르고자 하는 제안도 이미 있다. 용어의 혼란이 있다면, 그 제안에 따라 이두와 이찰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

이다. 정리하여 말한다면, 이승휴의 이서와 조선 초기의 이도, 이두, 이찰 등은 이찰이 되고, 이 글에서 설총이 이두를 창시하였다든지 이두를 완성하였다고 한 이두는 향찰, 이찰, 구결을 포함하여 넓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설총이 이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두 창시에 대한 기록은 실제 국어자료에서도 뒷받침된다. 물론 설총이 이두로 표기한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의 이두와 같은 성격인 자료는 설총이 활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 이전, 다시 말하면 설총이 활약한 시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같은 성격이라 함은 국어의 문법형태가 한자의 가차로 표기되는 사실이다. 8세기 중엽 이후의 개령갈항사(開寧葛項寺) 석탑과 신라백지묵서화엄경(新羅白紙墨書華嚴經) 발문 등에서 그러한 표기가 나타나고, 시대가 내려와 향가와 이찰에서 사용되었다. 이들보다 앞서는 국어자료는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의 명문(銘文)과 같이 국어의 어순은 반영되나 문법 형태는 한자의 조자(助字)로 표기되어 성격이 다르다. 그들 자료의 표기는 이른바 초기이두(初期吏讀) 또는 제1단계 이두이다. 국어의 어순이 반영될 뿐 아니라 문법형태가 가차의 한자로 표기되는 이른바 제2단계 이두, 곧 완성된 이두와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 설총의 이두 창시는 설총이 표기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이두를 완성하였음을 말한다. 이로써 초기 이두의 불완전한 표기에서 한자로 빌려 하는 국어의 표기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러한 이두의 완성은 앞선 시기의 초기 이두와 한문에 의한 문자생활의 축적된 경험으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일이다. 지난 뒤에 생각하면 극히 당연한 일도 처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예견(豫見)된 역사적인 사건에도 위대한 인물의 공헌이 있다.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에는 한자만으로 행하는 문자생활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여야 하겠다는 시대상황이 있었다. 이두와 한문으로 행한 오랜 문자생활도 창제의 기반이 될 정도로 성숙하였고, 거기에 중국의 언어정책과 언어 이론의 수용도 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에는 세종이란 위인이 있었다. 이두의 완성에도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그가 바로 설총인 것이다. 이두 창시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것을 말하고 국어사의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두는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 세련된 체계를 갖추어 한글창제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개화기에 이르러 공적인 문자생활에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는 칙령이 공포될 때까지 법령과 공사문서에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우리 문자사, 나아가 국어사에 설총이 이룩한 공적이 어떠한을 웅변으로 말한다.

다음으로 설총의 경전 훈해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바로 위에 인용된 『사기』와 『유서』의 기록은 이두의 창시와 관련되어 학계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위의 인용도 그런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학사에서 별로 주목되지 못한 정보가 있다. 그 사서가 편찬될 당시까지, 다시 말하여 4, 5백년 동안 설총이 읽고 해석한 경전을 유학자가 숭앙하고 따라 배웠다고 한 점이 그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경서(經書) 언해와 같은 권위를 설총의 경전 훈해가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경서 언해는 잘 아는 바와 같이 16세기 후반 교정청(校正廳)에서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책이다. 이때에 행한 언해의 대상인 경서의 해석은 전적으로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 따랐다. 주자학(朱子學) 또는 성리학(性理學)의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한 고려 말부터 종래의 경전 해석, 곧 설총의 경전 훈해는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 검토에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몽주(鄭夢周)의 시경(詩經) 구결을 비롯한 많은 학자의 경서 구결과 언해가 있었다고 하며, 임금이 직접 경서 구결을 확정하도록 한 지시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한 기록이 있는 것이다. 이견을 조정하여 나라의 규범적인 구결과 번역을 확정하려는 선조의 강력한 의지와 명령에 따라서 편찬된 것이 교정청의 경서 언해인 것이다. 이 경서 언해는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과거 시험의 강서(講書)에서 구결과 훈석(訓釋)의 기준이 되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구결과 언해는 경서 학습의 기준이 되고 있다. 경서 언해가 개화기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까지도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중간되었음이 그 사정을 말한

다. 설총의 경전 훈해는 오늘날 전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훈해는 주자학 이전의 원전(原典) 곧 주자의 집주와는 다른 주소(注疏)를 가진 경전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창시한 이두로 표기되어서 주자학이 전래하기 전까지 유학의 경전 학습에 큰 권위를 가졌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 유학사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경전 훈해가 국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훈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그 영향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 문화의 중심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된 문헌이 그 언어의 공통어의 성립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오늘날의 표준어가 1930년대에 조선어학회에서 행한 어문정리 사업의 결과이지만, 그 정리사업의 하나인 표준어 사정이 짧은 기간에 가능했던 것은 서울말을 기반으로 한 공통어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지로 표준어 사정이 있기 10여 년 전부터 발표된 현대문학의 작품에는 그 공통어가 사용되어 있었다. 평안도나 경상도 출신 작가의 작품에도 출신지의 사투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현대의 일만이 아니다. 정철(鄭澈)이나 윤선도(尹善道)의 작품에서 그들 출신지의 사투리를 보기 힘든 사실에서 공통어의 기원이 오랜 것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한글의 창제 이후로 간행된 불교 경전의 언해와 경서 언해가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이를 유추하여 보면, 4, 5백년 동안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설총의 경전 훈해도 신라의 공통어인 경주말과 고려의 공통어인 송도말에 비슷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송도말을 직접 계승한 서울말은 신라의 공통어인 경주말을 간접으로 계승하는 셈이다. 신라 향가에 나타난 언어가 오늘날의 경상도방언 곧 동남방언보다는 중세국어에 더 가까운 사실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설총은 이두의 창시로 국어의 문자화에 공적이 있으면서, 동시에 국어의 공통어 형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설총에 대하여 가계와 생애를 설명하고, 이어 국어에 끼친 그의 공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가계와 생애 등은 되풀이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국어에 끼친 공적이라 할 이두의 창시와 공동어 형성에의 기여는 요약함으로써 국어사의 관점에서 그 뜻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 글의 주제를 좀더 뚜렷이 할 것이다.

첫째로 이두 창시는 향찰, 이찰과 구결, 다시 말하면 한자를 이용한 국어의 완전한 표기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일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향가 표기에 나타나는 이른바 의자말음첨기(義字末音添記)의 방식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일이다. 곧 자의(字意)대로 사용된 한자(그것은 음독될 수도, 석독될 수도 있다.)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차자로 단어의 말음(그것은 대체로 문법형태이다.)을 덧붙여서 국어의 문장을 표기하였다. 이 이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훌륭한 한문을 보잘것없는 쥐꼬리로 만들었다고 한 최행귀와 국어를 불완전하게 표기한다고 한 「훈민정음해례서」의 정인지는 부정적이지만, 이승휴를 비롯하여 「언문창제 반대상소문」의 최만리 등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평가는 어떻든, 이두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법령과 실무 문서의 작성에, 그리고 경전과 불전(佛典)의 구결 표기에 사용되어 왔다. 개화기에 들어 역할을 한글에 아주 넘겨 줄 때까지 천년이 훨씬 넘는 기간, 이두는 우리의 공적인 문자생활에서 한문과 나란히 이룬 두 축의 하나를 담당하였다. 그 사용이 이미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문자사에서 차지한 비중과 사용 기간을 고려할 때, 이두의 창시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필적하는 공적이라 하겠다.

둘째로 공동어 형성에 대한 기여는 이두를 이용한 유교 경전의 해석에서 생겨난 부수적인 성과이다. 그 경전 해석은 주자학이 전래할 때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경전 해석을 4, 5백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하

여 읽고 배운다면, 결과적으로 거기 쓰인 언어는 모르는 사이에 보급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것은 송도말, 나아가 서울말 곧 국어의 공통어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오늘날의 표준어가 멀리 신라의 경주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으로 16세기 후반의 교정청에서 편찬, 출간한 경서 언해가 19세기 말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학습되면서 서울말의 보급에 큰 몫을 차지하였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가 이두로 해석한 경전은 공통어의 형성뿐 아니라 그 보급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기여는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는 없지만, 공통어의 형성과 보급에 중앙어로 된 주요한 문헌이 결정적인 힘을 가진다는 일반론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어의 형성과 보급에 기여한 그의 공적은 선조의 경서 언해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하여 말하면, 설총은 위대한 공적을 국어사에 남긴 인물인 것이다.